‘지도부 리스크’ 털어낸 김기현… 현장 중심 민생행보 박차

〈국민의힘 대표〉

최고의원 선거 등 당 정상화 속도
아동 복지시설 찾아 빨래 봉사활동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예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아동 복지시설인 ‘이든 아이빌’을 찾아 봄맞이 빨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각종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두 달여 동안 설화와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당이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일단 수습된 ‘지도부 리스크’는 민생 행보로 털어내고 당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 리더십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다.

김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최근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만큼 당 대표 민생 행보인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일환으로 현장을 직접 찾는 것이다.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119와 함께 진행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김 대표는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가족과 만나, 정책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관련 대책까지 추진한 점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와 발맞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것이라는 셈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간호법 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 마련 차원에서도 당은 14일 오후 정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그동안 내홍을 털고 당정이 원팀으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는 행보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연다. 현장 최고위를 마친 뒤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릴 예정인 5·18 국가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일 지도부 실언으로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2일 빨래 봉사 현장도 찾았다. 서울 성동구 관내 아동 복지시설인 이든 아이빌에서 진행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세탁 봉사활동’ 현장 방문 당시 김 대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우리 사회가 그늘진 곳이 조금 더 밝아지고 아픈 곳이 조금 더 잘 치유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더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당에서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 해야 할 숙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의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봉사활동에 나선 취지를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는 당 지도부를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태영호 전 최고위원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 준비도 시작했다. 당은 15일까지 공석인 최고위원 선출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전국위원 투표로 치르게 되며 당 안팎에서 많이 거론되는 유력 인물은 호남권 재선인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김남국, 민주당 ‘자진탈당’… 지도부 “징계 무력화 꼼수”

SNS 통해 민주당 탈당 의사 밝혀
“무소속 의원으로 정치공세 맞설 것”
민주당측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뉴시스

‘돈 봉투 논란’에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잠시 떠나겠다”면서 전격 탈당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60억원 어치를 보유했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코인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코인 거래 의혹 등으로 이해충돌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평소 친서민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온 바 있어 민주당이 입는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한 것이 당내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당 내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해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추후 민주당의 윤리감찰과 진상조사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탈당계를 내면 당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 없냐는 질문엔 “그렇다. 추후에 복당할 때 제한을 가하는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에 “우려한 대로 김 의원은 탈당 수순을 밟았다. 또 다시 자진 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 탈당”이라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당정 ‘간호법 제정안’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 제정안에 여야 협의는 이어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최영훈 기자